

	<b>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5. 5.

## CEPA Insight

- 세계은행,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6.8→5.8% 하향조정
- 한전-팀코리아,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추진
- 미국,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상계관세 예고..최고 3404%
-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, '쇼피·틱톡숍' 점유율 97%

### ■ 세계은행,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6.8→5.8% 하향조정

- 세계은행(WB)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.8%로 종전 전망치보다 1%포인트 하향 조정했다.
- 세계은행은 최근 내놓은 '동아시아·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'를 통해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.8%에서 5.8%로 대폭 낮췄다. 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.
- 보고서는 베트남이 수출입 규모가 GDP의 약 170%에 달하는 전형적인 무역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.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의존도는 전체의 30%, 최대 수입시장인 중국은 전체 38%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.
- 세계은행은 “베트남의 외부환경 노출도를 고려할 때, 무역정책 왜곡은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던 소비자 신뢰와 지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”며 “무역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베트남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글로벌 성장둔화는 민간투자, FDI(외국인직접투자) 유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- 베트남 금융부문의 취약성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. 보고서는 "26개 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이 2022년 150%에서 2024년 83%로 급락한 것은 이러한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며,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에 나설 여력은 있지만, 만성적인 공공투자 집행 지연이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"고 지적했다.
- 이러한 경제상황 불확실성과 달리, 빈곤율은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
- 하루 생활비 3.65달러 미만 인구 비율은 지난해 3.8%에서 올해 3.6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 은행은 농업 부문의 저성장에 따라 극빈곤층의 소득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.
- 세계은행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▲공공투자 확대 ▲재정·금융 리스크 완화 ▲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베트남 정부에 권고했다. 특히 신용기관법 개정 등과 같이 최근 개혁을 기반으로 한 조치는 금융부문의 리스크 완화와 회복력 및 안정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- 또한 ▲정보통신기술(ICT)·전력·교통운송 등 핵심 인프라 서비스 규제환경 강화 ▲녹색경제 전환 ▲인적자본 투자 ▲기업환경 개선 등은 장기적인 성장 도모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.
-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 세계은행에 따르면 내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6.1%, 2027년 6.4%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은행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제경제 환경과 더불어 국내 생산성 향상, 인적자원 강화,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.

## ■ 한전-팀코리아,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추진

- 한국전력 등 원전사업 팀코리아가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를 추진한다.
- 한전은 지난 11~14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, 국영기업들과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양국정부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'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.
- 한전은 산업공동위원회에서 베트남송전공사(EVNNPT)와 전력망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초고압 직류송전(HVDC), 기존의 교류(AC)송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- 이와 함께 베트남 닌투언성(Ninh Thuan)의 닌투언-1 원전사업자인 베트남전력공사(EVN) 회장, 닌투언-2 원전사업자인 베트남석유공사(PVN) 회장과 만나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. 또한 탄소저감기술,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(IDPP)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신기술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.
- 응웬 티 탄(Nguyen Thi Thanh) 베트남 국회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원전 도입을 위한 베트남 국회차원의 입법현황을 청취하고, 원전뿐 아니라 신기술 신사업 분야의 한전 진출 의지를 피력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.
- 앞으로 한전은 베트남 신규원전 사업 수수를 위해 전략적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신사업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## ■ 미국,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상계관세 예고..최고 3404%

- 미국이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최고 3403.9%에 달하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했다.
- 미국 상무부가 지난 21일(현지시간) 발표한 상계관세표에 따르면 동남아산 태양광 셀 및 패널에는 ▲캄보디아 3403.9% ▲태국 799.5% ▲베트남 542.6% ▲말레이시아 168.8%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. 상계관세율은 수입국과 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됐지만, 작년 말 예비판정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이다.
-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가운데 이들 동남아 4개 국산 수입량은 전체의 77%를 차지했다. 특히 베트남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, 업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.
- 이번 조치는 한국 한화큐셀, 미국 퍼스트솔라(First Solar)와 미국 내 중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진행된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. 이들은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둔 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덤핑을 일삼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.
- 업계는 "그동안 미국은 베트남 태양광 장비의 최대 시장 중 하나였기에 국내 태양광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"이라며 "새로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면, 베트남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도 크게 감소할 것"이라고 우려했다.
- 전문가들은 "상계관세로 인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와 매출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"이라며 "신속한 대응 없이는 수출시장 축소에 따른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유럽·일본·호주 등 대체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, 제품경쟁력과 국제기준 준수를 강화해 고조되는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-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미국내 태양광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오는 6월중 최종 관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778>

## ■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, '쇼피·틱톡숍' 점유율 97%

- 23일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메트릭(Metric)에 따르면, 1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총매출액(GMV)은 101조4,000억동(39억630만여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42%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.
- 메트릭의 실적통계는 쇼피(Shopee)와 틱톡숍(TikTok Shop), 라자다(Lazada), 티키(Tiki) 등 4대 플랫폼의 판매실적을 종합해 작성된 것이다.
- 전체시장 규모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, 시장점유율을 늘린 기업은 틱톡숍 1곳에 그쳤다. 틱톡숍은 1분기 무려 113.8%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을 35%까지 끌어올렸다.
- 쇼피는 62%의 점유율로 여전히 왕좌를 지켰으나 전동기대비 6%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틱톡숍의 공세에 매출 증가 폭이 29%로 둔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.
- 라자다와 티키의 매출은 각각 43.5%, 66.6% 감소하며 크게 부진했다. 이로써 라자다의 시장점유율은 3%대, 티키는 0%에 수렴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실상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이다. 소셜테크기업 유넷ECI(YouNet ECI)에 따르면, 작년말 기준 티키의 시장점유율은 0.9%를 나타냈으나,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계 수치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에 대해 메트릭은 "1분기 시장 동향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이 쇼퍼테인먼트(쇼핑+엔터테인먼트) 통합플랫폼으로 전환되는 분명한 추세를 보여준다"며 "이와 달리 티키와 라자다는 플랫폼 내용과 사용자경험 최적화 부족, 효율적인 판매 채널 구축능력 부족 등으로 시장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"고 진단했다.
- 이어 "틱톡숍의 성장은 소비자들이 숏폼 콘텐츠와 결합된 쇼핑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, 이는 전통적 이커머스 플랫폼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"며 "소비자들이 틱톡숍과 같은 콘텐츠플랫폼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는 향후 업계가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"라고 덧붙였다.
-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쇼피도 이달 중순 지역특산물 및 국내제품 판촉을 위한 장기 방송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등 최근 숏폼 영상 기반 마케팅을 강화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.
- 경쟁 심화는 플랫폼만이 아니다. 1분기 주문을 받은 입점 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3만8,000개가 줄어든 반면, 500억동 이상 판매고를 올린 상위 판매자는 95% 증가했다. 이는 대형 판매업체가 시장입지를 확대하면서 판로를 빼앗긴 소규모 업체들이 시장에서 떠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.
- 베트남 이커머스플랫폼 내 해외판매자들의 존재감도 커지는 모습이다. 1분기 기준 쇼피에 입점 중인 해외판매자의 시장점유율은 5.9%에 불과했지만, 판매량과 매출은 각각 7%, 12% 증가했다.
- 메트릭에 따르면 2분기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전분기대비 15% 늘어난 116조6,000억동(약 41억9,190만달러)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